

##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에 나타난 고전서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박혜성\*\*

### 〈차 례〉

1. 서론
2.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서사 구조와 고전서사 수용 양상
  - 1)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서사 구조
  - 2)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고전서사 수용 양상
3.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고전서사 수용의 의미
  - 1) 징악(懲惡)의 강조를 통한 웹소설의 ‘사이다’ 서사 구성
  - 2) 유한한 삶 속 운명에 대한 인간의 의지 강조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네이버 웹소설에 연재되었던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에 고전서사가 수용된 양상을 살피고,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에서 복수의 고전서사 수용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은 여우 어사 시호가 회수하러 다니는 신수(神獸)가 사실은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동물이었다는 설정을 통해 복수의 고전서사 작품을 움니버스 형식으로 배치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작품에 수용된 고소설과 설화 등 19종의 고전서사는 시호의 어사 업무 수행담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분량의 48% 이상을 차지한다. 시호의 어사 업무 수행담은 ‘하나의 신수 문제 종료 = 고전 에피소드 하나 종결’ 구조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독자는 신수 문제를 다룬 이야기를 읽으며 고전서사를 즐길 수 있다. 작중 수용된 19종의 고전서사는 변이의 정도에 따라 고전

\* 본고는 2023년 이화어문학회 여름 정기학술대회 학문후속세대 섹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하였음.

\*\* 선문대학교 이니티움 교양대학 강사

서사가 거의 그대로 진행된 것 1편, 고전서사별 공통 서사는 유지하고 등장 캐릭터만 작중 캐릭터로 교체된 것 4편, 고전서사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 1편, 고전서사가 공간 배경의 구성 요소로 사용된 것 1편, 고전서사별 공통 서사의 일부를 수용하여 작가가 창작한 것 12편으로 나눌 수 있다. 변이는 작품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서 작품의 일부를 가져오고 없는 내용을 작가가 추가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고전서사를 공간 배경으로 수용한 1편을 제외한 18편 중 14편에서 악행을 하는 캐릭터와 그에 대한 처벌이 강조되었다.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고전서사 수용은 첫째, 독자에게 익숙한 옛 이야기에 서 징악(懲惡)을 강조하여 웹소설의 ‘사이다’ 서사를 만들어냈다. 이때 악행이 내포한 문제점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기에 작중에서 응징이 강조되는 것은 독자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할 수 있다. 둘째, 고전서사를 이용해 운명에 순응한 채 좌절하는 신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어 신수에서 인간으로 존재의 전환을 이룬 캐릭터의 모습을 제시한 결말부와 함께 유한한 삶 속에서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인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였다.

□ 고전서사, 웹소설, 웹콘텐츠, 고전의 현대화, 조선여우스캔들, 고소설, 설화, 징악, 인간의 의지, 원소스멀티유즈

## 1. 서론

인터넷망의 정비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일상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전서사<sup>1)</sup>의 콘텐츠화도 드라마, 영화 등 기존의 대중매체 중심에서 웹소설, 웹툰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고전서사는 독자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교과서와 도서(종이책, 전자책) 등 비교적 한정적이며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현실<sup>2)</sup>, 각종

1) 본고에서는 고전서사를 설화와 고소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종길, 「[2022 국감] "정부 예산 증액에도 독서율 계속 감소"」, 온라인 『아시아경

도서관에서 공개 중인 원문 마이크로필름 자료의 가독성 한계, 현대 한글화된 온라인 DB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고전서사가 일반 독자와 만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고전서사의 웹콘텐츠화는 고전서사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증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웹콘텐츠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고전서사를 활용한 웹콘텐츠는 현대인의 고전 향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했던 제주도 무속신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작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랑또 작가의 웹툰 <가담항설>은 학창시절 한 번쯤 접해보았을 고전 시가를 작품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호평을 얻었다. 이처럼 고전서사를 활용한 웹툰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결과도 누적되어 가고 있다.<sup>3)</sup>

웹툰과 함께 대표적인 웹콘텐츠로 꼽을 수 있는 웹소설에서도 고전서사를 활용하거나 수용한 작품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용왕님의 세프가 되었습니다>, <설공찬환혼기>, <소녀, 홍길동> 등에 대해서는 작품 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sup>4)</sup>도 제출되었다.

제』, 2022.10.04. 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00411121528166>, 검색일: 2023.05.30.

- 3) 본고는 고전서사를 활용한 웹소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웹툰에 관한 연구는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고전서사를 활용한 웹툰에 대한 연구사는 김지은, 「웹툰 <별안간 아씨>의 古典詩歌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 『語文論集』 92, 중앙어문학회, 2002, 185~208쪽을 참고할 수 있다.
- 4) 홍우진, 「웹소설에 수용된 심청콘텐츠의 변모양상: 웹소설 <용왕님의 세프가 되었습니다>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84~88쪽; 홍우진·신호림, 「고전문학 기반 웹소설의 서사 확장 방식에 대한 시론(試論) - 웹소설 <용왕님의 세프가 되었습니다>를 대상으로」, 『한국기호학연구』 68, 한국기호학회, 2021, 189~217쪽; 최수현, 「고전소설의 콘텐츠화의 한 사례 고찰-웹소설 <설공찬환혼전>의 고소설 <설공찬전> 변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 155~178쪽; 송명진, 「웹소설로 진화한 로맨스의 잡식성과 그 서사적 특징 - 웹소설 <소녀, 홍길동>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4, 2019, 573~597쪽.

그런데 정혜경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콘텐츠화 과정에서 원천 소재의 활용도가 높은 작품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으며<sup>5)</sup> 단일 작품이나 모티프를 하나의 콘텐츠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상술한 웹소설 작품들 역시 〈용왕님의 세프가 되었습니다〉는 고소설 〈심청전〉, 〈설공찬환혼기〉는 고소설 〈설공찬전〉, 〈소녀, 홍길동〉은 고소설 〈홍길동전〉을 바탕으로 하며, 이들은 단일 작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원작의 줄거리와 무관하게 등장인물의 모티프를 차용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은 웹툰에 비해 연구의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웹소설 카테고리 작품으로 단일 작품이 아닌 19종의 고전서사를 활용하여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복수의 고전서사가 어떻게 하나의 웹소설에 수용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한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은 네이버 웹소설(네이버 시리즈)에 2017년 1월 3일부터 2017년 10월 3일까지 총 127화가 연재된 로맨스 판타지 장르 작품이다. 연재 종료 후에도 웹소설은 별점 9.0(10점 만점, 2023년 6월 19일 기준), 웹툰은 별점 9.56(10점 만점, 2023년 6월 19일 기준)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웹소설 연재 종료 후 전자책 단행본, 종이책 단행본 출간을 거쳐 웹툰 연재가 종료되었으며 드라마 판권 계약이 완료된 작품<sup>7)</sup>으로 고전서사를 활용한 웹소설의 원소스 멀티유

5)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집, 우리문화회, 2018, 135쪽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은 고전서사 작품들의 제목과 그것이 유의미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6) 정혜경, 앞의 논문의 123~134쪽에 제시된 〈고전서사 콘텐츠 현황〉표의 분석 대상 작품 중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활용한 융복합 항목에 수록된 작품은 게임 〈프린세스 평강〉(2013), 드라마 〈원녀일기〉(2014), 소설 〈검은 바람〉(2005), 웹툰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2017), 웹툰 〈삼작미인가〉(2017), 음악극 〈하늘로 간 청춘팔〉(2017), 창극 〈십오세십육세처녀〉(2007)의 7편이다.

7) 웹소설 연재 종료 후 웹툰 연재가 시작되어 2021년 1월 29일 1화 업로드를 시작으로

즈(One-Source Multi-Use)의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작품은 인간 세상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수(神獸)들을 주신(主神)의 명으로 잡으러 온 여우 신수 시호(翅狐)의 여정에 양인이었다가 기생이 된 초란이 합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초란은 기생을 빙자한 사기꾼, 시호는 지상의 어지러움을 바로잡으러 하늘에서 내려온 어사 여우<sup>8)</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서사 구조와 고전서사의 수용 양상을 살피고, 복수의 고전서사를 수용한 웹콘텐츠 작품인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에서 고전서사 수용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sup>9)</sup>

## 2.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서사 구조와 고전서사의 수용 양상

### 1)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서사 구조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서사를 주인공 시호와 초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3월 18일 작가후기까지 총 112화가 업로드 되었다. 드라마 판권 계약 완료 소식은 임지영, 「10년 전 '문학의 수처'였던 웹소설, 파죽지세 확장하기까지」, 온라인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93>(검색일: 2023.06.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 메인 페이지, <https://series.naver.com/novel/detail.series?productNo=2588931>(검색일자: 2023.05.30.)

9) <조선여우스캔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웹소설, 종이책 단행본, 전자책 단행본,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었다. 단행본이나 웹툰은 모두 웹소설 연재분을 바탕으로 출간되거나 스토리에 변형이 생긴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최초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웹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웹툰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주요 여정	상세 서사
(1) 시호의 인간 세계 파견 및 초란과의 만남	①신령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 문제를 일으키는 신수 회수를 위해 여우 신수 시호를 여사로 파견한다. ②시호는 여우쌈을 찾아온 화룡관의 기생 초란을 만난다. ③시호는 흑부리 영감의 도깨비 방망이를 회수하다가 초란과 재회한다. ④초란은 시호가 준 건물 파손 보상금으로 탈신하여 시호의 여정에 합류한다.
(2) 시호의 여사 임무 : 신수 해결하기	⑤한 고을의 원님에게 비단장수가 비단을 모두 잃어버린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다. ⑥선녀의 천상 복귀를 방해하는 사슴을 회수하고 가정폭력범 나무꾼은 기억을 지우고 처벌, 선녀도 기억을 지우고 천상으로 복귀한다. ⑦혼인 전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인이 남편의 무덤으로 들어가 나비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승천하여 환생하도록 한다. ⑧함정에 빠진 호랑이(한오)가 자신을 구해준 강아지를 잡아먹으려 하자 시호가 강아지를 살려 보낸다. ⑨연못의 신령으로 둔갑한 채 금도끼, 은도끼를 욕심내는 나무꾼들을 죽이는 박쥐 신수를 도사 휘율의 도움을 받아 회수한다. ⑩억울하게 죽은 흥부를 위해 놀부를 망자의 땅으로 인도하여 원혼이 된 흥부의 경고를 듣게 하고, 놀부, 놀부와 결탁한 원님에게 벌을 내린다. ⑪동물의 간 100개를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동물의 간 98개를 먹은 구미호 신수를 회수한다. ⑫시호는 쌍둥이처럼 자란 진설을 회상하고, 초란과 휘율은 각자의 과거를 숨긴 채 대화를 나눈다. ⑬일행은 버들 도령의 꽃밭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들을 얻는다. ⑭초란은 휘율의 도움으로 진설이 만든 위협을 피한다. ⑮시호는 호랑이에게 어머니를 잃은 오누이를 부자집 양자, 양녀가 되도록 하고, 아이들 어머니의 혼은 하늘로 떠난다. ⑯담이가 잃어버린 도깨비감투를 주워 쓰고 식량을 훔치던 여인에게 시호와 휘율이 벌을 가장한 축복, 자녀의 성공을 예언한다. ⑰초란은 까치를 공격하는 구렁이(이무기)를 공격하고, 시호는 구렁이를 죽인다. 암컷 구렁이가 초란에게 제안한 내기에서 제비 신수의 도움으로 이긴다. 시호는 암컷 이무기를 소멸시킨다. ⑱처녀를 제물로 받는 바다의 용을 퇴치하고 그사이 진설의 위협으로 사망한 초란을 버들 도령의 꽃으로 살린다.
(3) 시호와 초란의 이별	⑲시호와 이별한 초란은 화룡관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난다. ⑳화룡관으로 가던 초란은 닭을 봉이라고 속아서 산 사람의 억울함을 풀 어주고 돈도 돌려준다. ㉑한오(호랑이 신수)는 자신을 형으로 따르는 인간과 함께 지내는 중이었는데 검계에게 위협 당하는 초란을 우연히 만나 그녀를 구한다.
(4) 시호와 초란의 재회 및 초란을 둘러싼 변화	㉒시호와 초란은 재회하고 선율(부영이 신수)이 일행으로 합류한다. ㉓초란은 선율을 공격하는 뱀에게 화살을 쏘고 뱀이 소멸한다. ㉔초란의 능력이 생긴 원인을 알고자 시호와 초란은 염라대왕을 만난다.

	<p>②5 초란의 전생(수아)이 밝혀지고 어촌(진영)의 고자질이 집 화제의 원인임을 알게 된다.</p> <p>②6 일행은 큰 싸움이 시작되기 전 검계를 먼저 소탕하기로 한다.</p> <p>②7 배 좌수의 두 번째 부인 허씨가 장쇠를 죽인 것이 밝혀진다.</p> <p>②8 일행은 장화의 누명을 벗기고, 시호는 상황을 방관한 배 좌수도 별한다.</p> <p>②9 초란이 사실 선녀의 딸이고, 표철주가 검계에 가담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신의 명이라며 하늘로 간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였음이 밝혀진다.</p> <p>③0 검계에게 속아 절에 쌀을 시주하기로 했다는 남자의 딸 심청을 구한다.</p> <p>③1 초란은 어머니가 선녀인 것을 알게 된다.</p> <p>③2 표철주는 장봉익에 의해 사망하고 초란에게 사과하고 소멸한다.</p>
(5)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한 싸움	<p>③3 휘울의 희생으로 초란의 화살에 어촌이 사망한다.</p> <p>③4 선울과 시호는 염라대왕에게 휘울의 환생을 부탁한다.</p> <p>③5 비사사에게 쫓기던 초란을 담이가 구하고, 초란은 진설과의 싸움에서 열세에 몰린 시호를 돕는다.</p> <p>③6 시호와 초란은 도깨비 마을에 머물던 중 진설이 조종한 혼들의 습격을 받는다.</p> <p>③7 초란의 위기를 감지하고 분노한 시호는 봉인되었던 모든 힘이 해방된다.</p> <p>③8 초란은 담이의 아내로 둔갑한 주신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죽는 것이 진설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p> <p>③9 시호는 진설 앞에서 초란을 죽이는 척하여 진설을 당황시키고 그 틈에 초란이 진설을 염라의 활로 쏘아 소멸시킨다.</p>
(6) 결말 및 에필로그	<p>④0 시호와 초란은 동료들의 축복 속에 혼인한다.</p> <p>④1 2017년 서울, 시호와 담이, 선울, 환생한 초란과 휘울이 모두 모인다.</p>

<표1>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서사구조

<표1>을 통해 이야기가 시호의 인간 세상 파견 및 초란과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시호의 어사 임무 수행, 초란과의 이별, 재회, 초란을 둘러싼 변화,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한 싸움, 결말 및 에필로그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특성에 알맞게 주인공들의 애정 성취 문제(1, 3, 5, 6)와 신수들과의 대결과 세상 멸망 저지(2, 4, 5)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 에피소드들이 섞여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은 시호와 초란의 이별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전반부는 신수 회수, 중반 이후는 작품의 최종 악역이라 할 수 있는 신수 진설과의 대결로 스토리가 집중된다.

특히 <심청전>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세상의 멸

망을 막을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적대 세력과 싸우는 주인공 일행의 모습이 주로 그려진다. 주인공 일행의 대결 상대는 표철주·검계, 신령 어촌, 신수 진설 순이며 나중에 등장할수록 능력도 강하여 대결 양상도 치열해진다. 결말부에서는 도사 휘율의 희생으로 얻어낸 어촌의 사망, 세상을 멸망시키고 재창조하려는 신수 진설의 소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인간 세상 등이 드러난다.

본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전서사가 집중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2)~(4)이다. 특히 (2)는 작품 전반부에 있으며 초란과 동행하게 된 시호가 신수 회수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분량 면에서도 127화 회중 61화를 차지하여 전체의 약 48%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고전서사를 수용한 에피소드들이 주를 이루면서 어사 임무 수행 중인 시호가 담이, 초란과 함께 신수를 잡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시호의 어사 임무 수행담은 고전서사 속 동물을 신수로 설정하여 ‘목표 신수 제시 - 전략 수립 - 전략 실행 - (재대결) - 목표 신수의 회수/소멸/회수 실패’의 구성을 보이는데 하나의 에피소드에 최소 하나의 신수가 등장하며 목표 신수와의 대결이 종료되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마치 하나의 퀘스트를 해결하면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것과 비슷한 인상을 준다. 물론 제비나 선울처럼 처음부터 주인공 일행을 돕는 신수, 한오처럼 적대적이었다가 아군으로 변하는 신수도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여 기본적으로 시호의 어사 업무 수행담은 신수 문제 하나 종료 = 하나의 고전 에피소드 종결 구조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독자는 신수 문제를 다룬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하나의 고전서사를 즐길 수 있다.<sup>10)</sup> (3)은 주인공들의 이별이 주요 내용이

10) 신수 문제는 서사 구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첫 번째 행선지를 묻는 초란의 질문에 시호는 “신녀를 만나러 갈 것이요.”(5화)라고 하여 <나무꾼과 선녀>를 연상하고 사슴을 떠올리게 하거나 “범을 잡을 것이요.”(12화), “용을 잡으러 갈 것이요.”(57화)처럼 다음에 등장할 신수를 예고하여 그 동물이 등장하는 고전서사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웹툰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만 초란이 만나는 사건들이 고전서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4)에서는 <장화홍련전>, <심청전> 바탕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호가 주신이 파견한 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고전서사 수용 양상

다음으로 웹소설 에피소드의 바탕이 된 고전서사 목록과 변이 경향을 비교한다. 작가는 블로그의 <에피소드1. 망주석 재판> 게시글<sup>11)</sup>에서 “조선 여우스캔들은 전래동화를 밑바탕으로 한 글”<sup>12)</sup>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함께 제시한 <망주석 재판> 이야기 관련 링크<sup>13)</sup>를 제외하고는 고전서사의 각편이나 판본 또는 다른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작가가 무엇을 참고로 창작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웹소설 에피소드에 반영된 고전서사를 전래동화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설화·고소설과 비교하였다. 웹소설 에피소드의 바탕이 된 고전서사 목록과 변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sup>14)</sup>

도깨비와 흑부리 영감 <sup>15)</sup>		—		여우샘과 흑부리 영감(1~6)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	흑부리 영감이 흑에서 노래가 나온다며 도깨비들에게 판다. 욕심쟁이 이웃은 도깨비에게 흑 떼러 갔다가 흑을 붙이고 온다.			흑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을 속여 흑을 떼고, <b>도깨비 방망이를 훔쳐 나온 후 가족도 버리고 도망친다. 시호가 흑부리 영감을 벌준다.</b>	

11) 차소희, 「에피소드1. 망주석 재판」, 『차소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_sohee/220911977226](https://blog.naver.com/cha_sohee/220911977226), 검색일: 2024.02.13.

12) 차소희, 위의 블로그 게시글.

13) 온라인 <문화원형백과 한국설화 인물유형>, 항목명: 망주석 재판, 각주 12의 게시글에 있는 링크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83841&cid=49258&categoryId=49258>로 변경되었다.(검색일: 2024.02.13.)

14) 표의 가장 왼쪽 첫째 열은 순서 번호, 둘째 열은 고전서사, 셋째 열은 웹소설에 대해 적는다. 웹소설에서 변이된 부분은 진하게 표시한다.

15) 이하 <표2>에 제시된 설화의 기준 각편과 고소설 이본은 항목별 각주로 제시한다.

	망주석 재판 <sup>6)</sup>	—	망주석 이야기(1~2)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2	비단 장수가 잃어버린 비단을 찾으려고 원님이 망주석 재판을 연다. 마을 사람들이 재판에 가져온 비단은 모두 비단 장수 것이었고 그래서 이웃 비단 장수가 도둑임을 알았다.		비단 장수가 잃어버린 비단을 찾으려고 원님이 망주석 재판을 연다. <b>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비단 중 일부가 비단 장수의 것이었고</b> , 마을 사람들이 비단을 산 이웃 비단 장수가 도둑이었다.
	나무꾼과 선녀 <sup>7)</sup>	—	선녀 구출 작전(1~5)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3	사슴은 나무꾼에게 보답으로 선녀와 결혼하는 법을 알려준다. 선녀는 아이 둘을 낳은 후 날개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하늘로 간다. 후에 나무꾼도 승천하여 가족과 만나고 신선이 된다.		<b>선녀는 미움을 받으면 주신이 준 능력을 잃는다. 사슴은 선녀를 괴롭히려고</b> 나무꾼에게 선녀와 결혼하는 법을 알려준다. <b>나무꾼은 선녀를 때리기도 하고, 다른 여인이 생기자 날개옷을 주며 내쫓는다. 시호는 사슴 신수를 회수하고 나무꾼을 벌한다. 선녀는 기억을 지우고 승천한다.</b>
	호랑이와 할머니 <sup>8)</sup>	—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1~3)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4	할머니가 호랑이와 내기에서 져서 잡아먹히게 되었다. 할머니는 팔죽이나 한 그릇 먹고 죽게 해달라 했다. 할머니가 팔죽을 쑤자 파리, 달걀, 게, 지게, 멧석이 팔죽을 얻어먹은 후 할머니를 잡아먹으러 온 호랑이를 물리친다.		<b>호랑이는 유죄 삼아 팔죽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한다. 팔죽 할머니는 호랑이가 올 시간에 초란과 시호에게 집을 봐달라고 한다. 사실 팔죽 할머니는 흉년에도 주변을 돕지 않았다. 집안 물건의 도깨비들이 합심해 호랑이를 잡는다. 시호는 호랑이 신수를 회수하고 팔죽 할머니를 벌준다.</b>
	양죽 설화 <sup>9)</sup>	—	나비꽃 살다(1~2)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5	함께 공부하던 남장 여자와 그의 동료 남자가 있었다. 여자가 다른 곳에 시집가게 되자 남자는 앓다가 죽는다. 여자가 시집갈 때 남자의 무덤 앞에서 그를 부르자 무덤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간 자리에서 나비가 날아올랐다.		<b>혼인 전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도 시집에서도 거절당한 여인이 기억을 지우고 사느니 죽겠다고 답한다. 여인은 남편의 갈라진 무덤 속으로 들어가</b> <b>시호는 여인의 혼을 나비로 만들어 세상을 구경케 한다.</b>

〈도깨비와 흑부리 영감〉, 『한국구비문학대계』 7-6, 496~498쪽.

- 흑부리 영감 이야기를 한국의 이야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논쟁이 있으며 한국의 옛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 강상대, 「근대 '흑부리영감' 서사의 자료적 고찰 - '조선 전설·동화 조사'(1913)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8, 2019, p.112.

16) 작가가 제시한 〈망주석 재판〉 링크는 각주 13에 있다. 본고의 기준 각편은 〈비단을 찾아준 현명한 사또〉,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369~373쪽.

17) 〈나무꾼과 선녀〉, 『한국구비문학대계』 3-2, 411~414쪽.

	금도끼 은도끼 <sup>20)</sup>	—	금도끼 은도끼(1~4)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6	연못에 쇠도끼를 빠뜨린 정직한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세 개의 도끼를 받았다. 심술 맞은 이웃이 쇠도끼를 연못에 일부러 빠뜨리고 거짓말을 하자 산신령이 도끼를 주지 않았다.		정직한 나무꾼의 사연이 퍼진 후 연못에 갔다가 죽는 사람이 늘어났다. 연못의 신령은 바퀴 신수가 둔갑한 것으로 그가 거짓말하는 나무꾼들을 죽인 것이다. 시호는 바퀴 신수를 희수한다.
	토끼에 속은 호랑이 <sup>21)</sup>	—	함정에 빠진 호랑이(1~2)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7	어떤 사람이 굴에 빠진 호랑이를 꺼내주자 호랑이가 그를 잡아먹으려 했다. 소도 여우도 호랑이 편이었다. 토끼가 원래 상태대로 해보라 하고 호랑이가 함정에 빠지자 도망쳤다.		강아지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한오)를 구하자 호랑이가 강아지를 잡아먹으려 했다. 시호가 나타나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하여 강아지를 구한다.
	흥부전(한남서림본) <sup>22)</sup>	—	흥부와 놀부(1~5)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8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얻은 박씨에서 자란 박을 타서 부자가 된다.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받은 박씨에서 자란 박을 땀다가 재산도 집도 다 잃고서 가족을 이끌고 흥부를 찾아간다.		흥부가 제비 신수를 도와주고 금광이 있는 땅문서를 받는데 놀부가 금광을 빼앗는다. 답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인 척하여 놀부를 땅자의 땅으로 보낸다. 흥부의 원혼을 만난 놀부는 관아에서 죄를 자백한다. 시호는 놀부에게 벌을 준다.
	가축의 간 먹는 여우 관련 설화 <sup>23)</sup>	—	구미호전(1~4)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9	여우가 어느 집 삼형제 밑의 막내 여동생으로 태어나 가축의 간을 빼먹는다. 진실을 말한 삼형제는 쫓겨나고 여우 누이는 부모님까지 잡아먹는다. 큰이들은 집을 찾아갔다가 부인이 써준 부적 세 장을 써서 살았다.		구미호가 동물의 간 100개를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다른 구미호 신수의 거짓말에 속아 민가에서 키우는 가축의 간을 포함해 동물의 간을 98개 먹었다. 시호는 구미호를 희수한다.

18) <호랑이와 할머니>, 『한국구비문학대계』 8-4, 308~312쪽.

19) <나비의 유래(문도령)>, 『한국구비문학대계』 1-1, 480~483쪽.

20) <금도끼와 은도끼>, 제보자: 이영순, 채록지: 충남 예산군 예산3리, 채록일: 20130331, 온라인 「한국구비문학대학회」, [https://gubi.aks.ac.kr/web/VolView2\\_html5.asp?datacode=08\\_11\\_FOT\\_20130331\\_HID\\_LYS\\_0001&dbkind=2&highlight=%EA%B8%88%EB%8F%84%EB%81%BC&navi=%EA%B2%80%EC%83%89;%EA%B8%88%EB%8F%84%EB%81%BC\(%EC%A0%9C%EB%AA%A9\)](https://gubi.aks.ac.kr/web/VolView2_html5.asp?datacode=08_11_FOT_20130331_HID_LYS_0001&dbkind=2&highlight=%EA%B8%88%EB%8F%84%EB%81%BC&navi=%EA%B2%80%EC%83%89;%EA%B8%88%EB%8F%84%EB%81%BC(%EC%A0%9C%EB%AA%A9)), 검색일: 2024.02.11.

- 이 설화는 『이습우화』에 수록된 이야기로, 서양의 『이습우화』는 1896년 『신정심상소학』에서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다. 이 설화는 개화기 무렵부터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전래동화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한국민족문화

연이와 버들도령 유형 설화 <sup>24)</sup>		— 버들꽃 도령 이야기(1~7)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0	계모는 전처의 딸을 구박한다. 전처 딸이 정에 정도령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게 된 계모는 그를 죽인다. 전처 딸은 정에 정도령의 뒤뜰에 있는 습살이꽃, 뽕살이꽃, 살살이꽃으로 정에 정도령을 살려 둘이 살았다.	<b>연이의 계모는 연이를 구박하지만 버들 도령을 죽이지는 않는다. 버들 도령의 정원에서 키우는 환생꽃, 습살이꽃, 뽕살이꽃은 시호가 연어다가 나중에 초란이 죽자 그녀를 살리는 데 쓴다.</b>	
해와 달이 된 남매 <sup>25)</sup>		— 해와 달 오누이(1~6)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1	자신들의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는 하늘의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다.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다. 수수가 빨간 것은 그 때문이다.	<b>시호와 초란이 호랑이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남매를 대피시킨다. 남매의 어머니를 죽인 호랑이와 집으로 찾아온 호랑이(한오)는 다르다. 시호는 오누이를 좋은 집의 양자, 양녀로 만든다.</b>	
도깨비 감투 <sup>26)</sup>		— 도깨비감투의 비밀(1~5)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2	도깨비들이 흘린 감투를 주운 사람이 그것을 쓰고 도둑질을 한다. 감투에 구멍이 나서 빨간 천으로 기우자 금방 잡혔다.	<b>답이가 떨어뜨린 감투를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인이 주워 쓰고 도둑질을 한다. 감투 구멍을 빨간 천으로 기운 것 때문에 잡힌다. 시호는 여인의 동기를 고려해 여인에게 벌을 가장한 축복을 한다.</b>	

대백과사전, 〈은도끼금도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2816>, 검색일: 2023.05.31.

- 21) <토끼에 속은 호랑이〉, 『한국구비문학대계』 2-5, 100~102쪽.
- 22) 『興富傳』, 경관25장본, 한남서림, 1920.
- 23)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 위해 간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대중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 본고의 기준 각편은 〈여우 딸과 삼형제〉, 『한국구비문학대계』 4-2, 424~427쪽. 식인귀 형상의 여우 형상에 대한 설명은 김지선, 「한·중·일 여우 이야기의 비교학적 고찰」, 『귀신·요괴·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377~378쪽.
- 24) 이 유형의 설화는 각편에 따라 주인공이나 제목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분석 대상 웹소설의 에피소드 제목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연이와 버들도령 유형으로 칭한다. 본고의 기준 각편은 〈정에 정도령〉, 『한국구비문학대계』 7-3, 457~460쪽. 이 유형의 이야기는 도령이 죽는 경우도 있고, 죽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도령이 죽은 경우 살리는 방법은 꽃, 씨앗, 봉지 등으로 다양하며 꽃으로 살리는 경우는 무속신화 속 꽃 모티프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5) <해와 달이 된 남매〉, 『한국구비문학대계』 4-5, 751~752쪽.
- 26) <도깨비 감투〉, 『한국구비문학대계』 1-2, 265~267쪽.

	까지의 보은 <sup>27)</sup>	—	은혜 갚는 그들(1~5)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3	서울에 과거 보러 가던 종각이 까지 알을 노리는 수구령이를 활로 쏘아 죽였다. 종각이 암구령이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까지 세 마리가 종을 쳐서 남자를 살렸다.		새끼 까치를 구하기 위해 <b>초란이 수구령이에게 활을 쏘고 시호가 수구령이를 죽인다. 시호와 휘율이 암구령이에게 잡히고 초란은 종을 치러 간다. 까치들과 제비 신수가 종을 울린다. 시호는 암구령이를 소멸시킨다.</b>
	인신공희 설화 <sup>28)</sup>	—	백일홍 이야기(1~12)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4	두꺼비를 오래 키운 집 딸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지네의 제물이 되었는데 두꺼비가 지네를 죽여서 처녀가 살았다.		어업을 하는 마을에 <b>용 신수 두 마리가 와서 어업을 막는다.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바칠 처녀 제물을 제비뽑기로 정한다. 주인공 일행이 처녀를 살리고 용 신수 두 마리를 처리한다.</b>
	봉이 김선달 <sup>29)</sup>	—	닭은 울다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5	봉이 김선달은 닭을 봉이라고 하며 사다가 평양감사에게 봉이라고 바친다. 잡혀 온 닭장수는 판 값보다 많은 돈을 물어주었다.		<b>어떤 사람이 닭장수에게 속아 봉인줄 알고 닭을 산다. 초란이 원남께 닭을 봉이라고 바친다. 잡혀 온 닭장수가 판 값보다 많은 돈을 물어준다. 속았던 사람은 후에 봉이 김선달이 되었다.</b>
	호랑이의 보은 <sup>30)</sup>	—	형님~하고 부르니 호랑이가 나타났다(1~8)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6	어떤 사람이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뽑아주고 호랑이 덕에 부인을 였다. 부인 집에 인사를 가셔도 호랑이 덕에 부인을 지켰다. 돌아올 때 재산을 많이 받아 부부는 잘 살았다.		<b>호랑이 신수(한오)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외형과 상관없이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는 인간 이수과 친형제처럼 지낸다. 훗날 이수가 초란의 친구 매향과 함께 살 때 한오가 그들을 지킨다.</b>
	장화홍련전(세창서관본) <sup>31)</sup>	—	장화와 홍련이(1~7)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7	장화는 계모에 의해 누명을 쓰고 죽고, 장화의 죽음을 재촉하던 장쇠는 호랑이에게 두 귀, 한 팔, 한 다리를 잃는다. 홍련은 자살한다. 임금의 명으로 계모와 장쇠는 처벌받고 배 죄수는 풀려난다. 장화와 홍련은 윤씨 부인의 쌍둥이 자매로 환생하여 행복하게 산다.		<b>계모 허씨가 호랑이에게 팔이 먹힌 장쇠 모습이 소문날까봐 장쇠를 죽인다. 홍련은 자살한다. 배 죄수가 세간의 시선 때문에 장화와 홍련의 죽음을 목인했다고 말한다. 계모는 처벌받고 시호는 배 죄수에게 벌을 내린다. 자매는 환생하지 않는다.</b>

27) <까지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8-3, 196~198쪽.

28) 인신공희 또는 인신희생으로도 불린다. 여기서는 인신공희로 칭한다. 본고의 기준 각편은 <두꺼비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6-3, 443~445쪽.

29) <봉이 김선달>, 『한국구비문학대계』 5-6, 76~79쪽으로 이 각편에는 닭을 봉이라며

	심청전(한남서림본) <sup>32)</sup>	—	심청전(1~4)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8	심봉사는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을 받고 인단소에 빠지게 된 것을 알고 통곡한다. 인단소에 빠진 심청은 왕후가 되어 아버지와 재회한다.		심봉사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도 인당수에 빠지려 간 딸을 구하지 않는다. 심청은 이미 마을에 효녀라 소문이 났다며 도망을 포기한다. 초란이 대신 인당수에 빠지기로 하고 심청을 살린다.
	견우와 직녀 <sup>33)</sup>	—	칠월 칠석(1~8)
	고전 내용		웹소설 내용
19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데 다리가 없어서 만날 수 없었다. 새들이 다리를 놓아주어 이마가 까지게 된 것이다.		주인공들은 까치 다리를 건너 월궁에 도착한다. 견우와 직녀를 보았냐는 대사가 등장한다.

〈표2〉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에 수용된 고전서사의 종류 및 변이 현황

이상의 표를 보면 <도깨비와 흑부리 영감>, <망주석 재판>, <나무꾼과 선녀>, <호랑이와 할머니>, 양축 설화, <금도끼 은도끼>, <토끼에 속은 호랑이>, <홍부전>, 간 먹는 여우 관련 설화, 연이와 버들도령 유형 설화, <해와 달이 된 남매>, <도깨비 감투>, <까치의 보은>, 인신공희 설화, <봉이 김선달>, <호랑이의 보은> <장화홍련전>, <심청전> 등 18종, 배경 차원으로 수용된 <견우와 직녀>까지 포함하면 웹소설에 총 19종의 고전서사가 수용되었음<sup>34)</sup>을 알 수 있다.

산 이야기와 대동강 물을 판 이야기가 함께 있다. 이중 앞 부분의 이야기만 정리하였다.

30) <호랑이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5-5, 495~510쪽.

31) 『장화홍련전·적성의전』, 세창서관, 1915.

32) 『深淸傳』, 경판24장본, 한남서림, 1920.

33) <견우와 직녀>, 제보자: 임문자, 채록자: 대전시 중구 안영동, 채록일:20160313, 온라인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web/VolView2\\_html5.asp?datacode=08\\_16\\_FOT\\_20160313\\_HID\\_YMJ\\_0004&dbkind=2&highlight=%EA%B2%AC%EC%9A%B0&navi=%EA%B2%80%EC%83%89;%EA%B2%AC%EC%9A%B0%EC%A0%9C%EB%AA%A9](https://gubi.aks.ac.kr/web/VolView2_html5.asp?datacode=08_16_FOT_20160313_HID_YMJ_0004&dbkind=2&highlight=%EA%B2%AC%EC%9A%B0&navi=%EA%B2%80%EC%83%89;%EA%B2%AC%EC%9A%B0%EC%A0%9C%EB%AA%A9), 검색일: 2024.02.11.

34) 시호를 돕는 도깨비 수장 담이는 불도깨비족의 수장으로 변신 능력이나 불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설화 속 도깨비 모습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임을 알 수 있다. 고전서사 수용 범위를 캐릭터 설정 차원까지 확대하면 ‘담이’ 역시 포함할 수

각 에피소드별로 고전서사를 수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망주석 이야기>는 고전서사는 거의 그대로 진행되고 주인공 일행이 원님에게 비단 장수 잡을 방법을 알려주는 해결사 역할로 덧붙었다. 다음으로 고전서사별 공통 서사는 유지하고 등장 캐릭터만 작중 캐릭터로 교체한 네 작품이 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들의 공통 서사인 호랑이가 자신을 구한 이를 잡아먹으려다 원래 상태를 보여달라는 말에 다시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서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야기의 캐릭터를 강아지, 한오, 시호로 교체하였다. <도깨비감투의 비밀>도 비슷한 이야기들의 공통 서사인 주운 감투를 쓰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담뱃불에 구멍이 난 부분을 헝겊으로 기운 것이 원인이 되어 붙잡혔다는 내용은 유지되고 감투를 주운 사람이 생활고를 겪는 여인으로 교체되었다. <은혜 갠 그들>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들의 공통 서사인 까치를 구하려고 수컷 구렁이를 죽인 남자가 암컷 구렁이에게 죽을 뻔했으나 종이 세 번 올려 살았다는 서사를 유지하면서 수컷 구렁이를 죽인 남자의 역할을 주인공 일행이 나누어 맡았다. <닭은 옳다>에서는 닭을 봉이라고 산 사람이 관직에 있는 인물에게 그것을 봉이라며 바치고 잡혀온 닭장수에게 자신이 산 값보다 많은 돈을 돌려 받는 서사는 유지하면서 관리에게 닭을 봉이라고 바쳐서 닭장수에게 많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초란이 하고, 닭을 봉이라고 속아서 산 사람이 초란의 수법을 배워 나중에 봉이 김선달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고전서사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은 <구미호전>으로 여기서는 설화 속 가축의 간을 먹는 여우 모티프가 수용되었다. 고전서사가 작중 공간 배경으로 수용된 <칠월 칠석>에서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등장인물이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고, 이후 등장인물들이 최종 대결을 위해 까치 다리를 건너 하늘의 월궁으로 갔을 때 오는 길에 다리에서 직녀견우를 보았나

있을 것이다. 한국 도깨비의 형상에 대한 특징은 박기용, 「한국 도깨비 형상 연구」,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2011, 150~152쪽에 있다.

고 묻는 대사가 등장하여 공간 배경의 구성 요소로 수용되었다.<sup>35)</sup>

가장 많은 유형은 설화 각편이나 고소설 판본 중 각 이야기별로 공통 서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일부를 수용하여 작가가 창작한 방식이다. 앞서 소개한 7개의 에피소드를 제외한 12개의 에피소드가 이 방식에 해당한다. 각 작품별로 수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우샘과 흑부리 영감>에는 흑부리 영감이 흑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도깨비를 속인 부분, <선녀 구출 작전>에서는 시슴을 도운 나무꾼이 선녀 옷을 훔쳐 선녀와 결혼한다는 부분, <괘죽 할머니와 호랑이>에는 집안 물건들이 호랑이를 물리치는 것이 수용되었다. 다음으로 <나비꽃 살다>에는 중국의 양산백, 축영대의 이야기<sup>36)</sup>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남자가 죽고 여자가 그 무덤에 들어가자 나비가 날아올랐다는 내용이 수용되었고 <금도끼 은도끼>에서는 거짓말을 한 나무꾼이 벌을 받았다 부분, <홍부와 놀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돕고 복을 받은 홍부를 보고 따라한 놀부가 패가망신하는 것이 수용되었다. <버들꽃 도령 이야기>에서는 계모의 딸 연이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버들 도령이 연인이고, 버들 도령이 정원에서 사람 살리는 꽃을 키운다는 부분이 수용되었고, <해와 달 오누이>에서는 호랑이가 남매의 어머니를 잡아먹고 남매도 잡아먹으려다가 실패했다는 부분, <백일홍 이야기>에서는 마을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삼아 제의를 올리고 제물이 된 처녀의 구원자가 등장한다는 부분이 수용되었다. <장화와 홍련이>에서는 계모의 구박, 장쇠의 호환(虎患), 홍련의 죽음, 계모 처벌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용되었고, <심

35)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배경은 조선, 한양(1화)으로 제시되며, 정확한 시간 배경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작중 초란의 대사에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소녀, 명나라에서 들어온 거울을 매일 매시 보느바.”(1화)라고 있으며, 작중 초란의 아버지를 표절주로 설정한 점(35화),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도둑질을 했던 여인의 아이 중 한 명이 경기 어사 정이수가 된다고 도사 휘율이 축복한 점(52화) 등에서 대략적인 시간 배경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6) 중국의 <양축설화>는 조선에 유입되어 <양산백전>의 형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청전)에서는 심봉사가 공양미 삼백 석 시주를 약속하고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로 팔려 간다는 부분이 수용되었다.

웹소설에 수용된 고전서사는 구조 면에서 볼 때 이야기 전체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것부터 독자에게 익숙할 법한 고전의 일부를 가져다가 작가의 창작을 더해 에피소드를 완성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의 변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 수용된 고전서사가 19종이고, 고전서사를 바탕으로 창작된 에피소드가 전체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 이상이기 때문에 고전서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너무 많으면 자칫 웹소설 주인공들이 고전서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에 덧붙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은 고전서사를 크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수용하여, 독자가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를 다시 읽는 느낌을 받거나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며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 절반 이상의 작품은 고전서사의 일부만 수용하고 거기에 작가의 창작을 더해 이야기를 완성하여 독자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읽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내용 면에서는 악행을 하는 캐릭터와 그 악행에 대한 처벌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서사를 배경으로 수용한 1편을 제외한 18편에 대해 신수의 유무와 악행, 처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수 유무	처벌 대상 (항목 수)	웹소설 회차명	악행	처벌 내용 <sup>37)</sup>
악한 신수 있음	신수(5)	함정에 빠진 호랑이	한오: 도와준 이를 먹으려 함	다시 함정에 빠지게 하기
		금도끼 은도끼	박쥐: 거짓말한 자 죽이기	호리병에 회수
		구미호뎐	구미호: 가족의 간 먹기	호리병에 회수
		해와 달 오누이	범: 인간 잡아먹기	만나지 못함
		은혜 갇는 그들 <sup>38)</sup>	수구령이: 새끼까치 위협 암구령이: 주인공 일행의 목숨 위협	수구령이: 죽임 암구령이: 소멸

신수·인간 모두(3)	선녀 구출 작전	사슴: 선녀가 나무꾼과 결혼하게 만들기 나무꾼: 가정폭력	사슴: 호리병에 회수 나무꾼: 기억삭제, 불운·지옥행·호식(虎食)예언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한오: 인간 잡아먹으려 함 팔죽 할머니: 흉년에 주변을 돕지 않고 재산을 늘림	한오: 호리병에 회수 실패 팔죽 할머니: 재산 상실·가난한 삶
	백일홍 이야기	용 신수(2): 마을 생계 망치고 처녀 제물 요구 관원: 검계와 결탁	신수: 죽임(휘울), 호리병 회수 관원: 관직·재산 상실 예언
악행한 인간(7)	여우 새과 흑부리 영감	흑부리 영감: 거짓말·도둑질	흉측한 외모와 목소리·도둑질한 물품의 회수
	망주석 이야기	이웃 비단 장수: 도둑질	망신·별금(관원)
	홍부와 놀부	놀부: 거짓말로 홍부의 재산 갈취, 홍부 사망의 원인 제공 관원: 놀부와 결탁	놀부: 재산 상실·가난한 삶·피해자 원혼과의 만남 관원: 죄인 판별 능력 부여 [축복]
	도깨비 감투의 비밀	홀로 아이 키우는 여인: 도둑질	여인의 지속적 소득 보장·아이의 미래 예언[축복]
	닭은 옳다	닭장수: 거짓말	망신·별금(관원)
	장화와 홍련이	허씨: 전처 딸에게 누명 씌우고 구박하기, 친자 죽이기 배좌수: 친딸의 죽음 방관	허씨: 능지처사(관원) 배좌수: 모든 이의 기억과 사회에서 소멸
	심청전	심봉사: 친딸의 죽음 방관	태도를 일갈(초란)
별 받는 이 없음(3)	나비꽃 살다	시집과 친정: 혼인 전 과부가 된 여인을 받아주지 않음	X
	버들꽃 도령 이야기	계모: 전처 딸 구박	X
	형님~하고 부르니 호랑이가 나타났다	에피소드 메인인 신수나 인간의 악행이 없음	X

〈표3〉 신수 유무와 처벌 유형 구분

〈표3〉을 보면 신수가 등장하는 것은 8편, 신수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10편이다. 8편의 에피소드에 언급되거나 등장하는 신수들은 모두 악한 신

37) 처벌 주체는 시호가 기준이고 다른 이가 한 경우는 ( )에, 추가 설명은 [ ]에 적는다.

38)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암컷과 수컷 구렁이는 100년 묵은 구렁이로 지상의 동물이지만 도력이 높은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잡아먹어 그 힘이 신수와 같다. 작중 암컷 구렁이는 주인공 일행을 상대로 환술을 쓴다.

수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중 세 편은 신수의 악행과 인간의 악행이 동시에 드러난다. 신수의 악행은 선녀 괴롭히기, 인간 괴롭히기, 인간 살해가 주를 이루었다. 악행을 한 신수는 대부분 시호의 호리병에 회수되었고 드물게 소멸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악한 신수가 없는 10편 중 7편에서는 악행을 한 인간이 부당 이득을 회수당하거나 재산을 모두 잃거나 죽거나 사회적 연결고리와 기반을 모두 잃고 사실상 없는 사람이 되는 벌을 받았다. 그리고 <홍부와 놀부>의 관원이 죄인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나 <도깨비 감투의 비밀>에서 감투 주운 여인이 일감이 끊이지 않고 정성을 들인 만큼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표면상으로는 벌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인물에게 축복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섞여 있다. 다음으로 10편 중 3편에서는 벌을 받는 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인간의 악행은 거짓말, 도둑질, 자신의 재산상 이익과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주를 이루었다. 시호는 악행을 한 인간에게 대부분 그 인물이 가장 추구하던 것을 다시 얻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리는 것으로 그려졌다. 벌 받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에피소드는 주인공 일행이 만난 존재가 가진 고민과 삶의 방향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작중에서 악행(惡行)을 했던 신수들은 대부분 어사 시호에 의해 벌을 받았고, 악행을 한 인물들 역시 하늘의 어사 시호가 주는 벌이나 지상의 관원이 주는 벌을 받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18개의 고전서사 중 14개에서 악행을 한 캐릭터가 벌을 받는 구조를 보여 웹소설 작품이 여러 개의 고전서사를 수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악행에 대한 처벌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의 고전서사 수용의 의미

#### 1) 징악(懲惡)의 강조를 통한 웹소설의 ‘사이다’ 서사 구성

일반적으로 고전서사의 결말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이 많아 뻔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악(惡)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소재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가 큰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주인공이 빌런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는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기 때문이고,<sup>39)</sup> 지상파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의 인기 요인 중 하나로 “더욱 신박해진 ‘눈눈이이 복수법’”<sup>40)</sup>이 언급되는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악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두 드라마 모두 주인공들의 행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적 복수였지만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웹소설에서도 악에 대한 처벌이나 가해자에 대한 복수는 인기리에 향유된다는 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이 비로소 웃음을 찾을 수 있었던 과거의 드라마들과 달리 이제는 매회 사이다 없는 드라마들은 시청자를 붙잡아둘 수 없다.”<sup>41)</sup>는 분석은 웹소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은 악행을 한 신수나 인물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여 웹소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다’<sup>42)</sup>형 응징을 드러낸

39) 문지연, 「[SC초점] 사이다無? 안 볼란다. ‘더 글로리’→‘모범택시’ 사적 복수에 열광한 이유」, 『스포츠조선』, <https://sports.chosun.com/entertainment/2023-03-22/202303230100171440020877?t=n1>, 검색일: 2023.11.30.

40) 김현정A, 「“시즌3 제작해 주세요” 모범택시 시즌2 美친 시청률로 맞은 결말」,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7744>, 기사 검색일: 2023.11.30.

41) 문지연, 앞의 기사.

42) 일명 ‘사이다 서사’, ‘사이다물’이란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답답함 없이 시원하고 통쾌하게 물리치는 이야기를 뜻한다. 주인공은 악역을 손쉽게 해치우고 그 전개 역시 기승전결을 담아 빠르게 펼쳐진다. - 강다운, 「지금 안방은 통쾌함 ‘팡팡·시원한’ 사이다, 여성 주인공과 함께 [MD포커스]」, 온라인 『마이 데일리』, <https://mydaily.co.kr/page/view/2024020509161043987>, 검색일: 2024.02.17.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자들에게는 전래동화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할 법한 옛 이야기들<sup>43)</sup>을 수용하여 작품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sup>44)</sup> 개별 에피소드들에서는 주인공 커플의 전생과 현생이 얽힌 로맨스와 함께 시호의 어사 업무에서 속 시원한 징악(懲惡)을 강조한 것이 해당 작품의 인기

43) 조선 3대 동화집이라는 평을 받는 조선총독부 편 『조선동화집』(1924, 심의린 저 『조선동화대집』(1926), 박영만 저 『조선전래동화집』(1940)에 모두 수록된 작품은 웹소설 에피소드 기준 <도깨비와 흑부리 영감>, <나무꾼과 선녀>, <홍부와 놀부>, <해와 달 오누이>, <은혜 갠 그들>이다. 각 도서별 웹소설 수록 작품에 해당하는 작품명, 비교에 사용한 전래동화집의 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조선동화집』(1924): <흑 떼이기 흑 받기>, <선녀와 날개웃>,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놀부와 홍부>, <천별 받은 호랑이>, <은혜 갠 두꺼비>, <종을 친 까치>.

-『조선동화대집』(1926): <흑 달린 늑은이>, <김득선의 후회>(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은혜 모르는 호랑이>, <놀부와 홍부>, <악독한 범>, <쌍쌍의 보은>, <두꺼비의 보은>, <오작교>.

-『조선전래동화집』(1940): <흑 떼 이야기>, <선녀의 웃과 수탉>, <연이와 칠성이>, <놀부와 홍부>, <예쁜이와 버들이>, <해와 달 된 이야기>, <까치의 보은>, <봉익이 김선달>(제목은 유사, 내용은 붕과 꿩 이야기 아님), <장화와 흥련>.

-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저, 『조선동화집: 우리나라 최초 전래동화집(1924)의 번역·연구』, 집문당, 2003; 심의린 저, 신원기 역, 『조선동화대집: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보고서, 2014; 박영만 지음, 권혁래 옮김, 『(화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 보고서, 2013.

44) 작품 댓글에는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발견한 반가움이나 재미, 변형된 이야기를 통해 느끼는 참신함이나 작가의 재해석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댓글이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 이하 독자 댓글 인용 각주에서는 작성자의 아이디, 댓글 본문, 댓글이 달린 에피소드 회차 정보, 댓글 검색일자를 적고 댓글의 표기는 작성자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작성자 infa\*\*\*\*: 전래동화 내용이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되게 참신하네(6화 망주석 이야기(1)), 2023.05.30.

작성자 yeji\*\*\*\*: 우와 동화, 설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네.. 좋다(7화 망주석 이야기(2)), 2023.05.30.

작성자 gerb\*\*\*\*: 전래동화 풀어쓰기. 남나재밋스(13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2023.05.30.

작성자 biga\*\*\*\*: 어렸을때, 읽었던, 설화를, 세월에, 묻혀, 잊고있었는데, 나이들먹고, 이렇게, 접하니, 감회가새롭네요! 작가님나름에, 재해석이, 멋있고, 재밌고, 감동이네요!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10화 선녀구출작전(3)), 2023.05.30.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고전서사를 바탕으로 한 작중 에피소드에서 악행을 한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대체로 멋진 외모, 많은 재산이나 물질적 이득, 사회적 체면이나 위신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도 버리고, 타인에게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악행을 하는 이들이 욕망하는 것은 현대인들도 한 번쯤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작중에서 문제의 원인은 욕망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보이는 거짓말이나 도둑질, 약자에 대한 괴롭힘 등의 행동에 있다. 그리고 개인의 욕망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절도, 가족 간 갈등, 약자에 대한 횡포 등은 현재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작중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적 행동이 현재성을 갖기에 작중에서 이루어지는 악행에 대한 응징은 독자의 대리만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홍부와 놀부〉 에피소드에 달린 댓글<sup>45)</sup>이나 초란의 걸크러시 캐릭터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회차에 달린 댓글<sup>46)</sup>을 보면 악행을 한 이에 대한 초란의 거침없는 비판이나 시원시원한 언사, 악행을 한 이가 하늘의 어사 시호에게 벌을 받는 모습을 본 독자가 후련함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중 상황과 유사한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해자이거나 악행을 한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악행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웹소설 안에서는 주인공 일행이 가해자에게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45) 작성자gold\*\*\*\*: 사이다!!!(27화 홍부와 놀부(4)), 2023.12.26.

작성자 zkff\*\*\*\*: 속시원하다!!!(27화 홍부와 놀부(4)), 2023.12.26.

46) 작성자infa\*\*\*\*: 와 여주 개멋있어(1화 여우샘과 흑부리 영감(1)), 2023.05.30.

작성자sysy\*\*\*\*: 초란이 여장부네! 비록 기녀지만 기개가 사내 뺨쳐요 매력덩어리야(2화 여우샘과 흑부리 영감(2)), 2023.05.30.

작성lur1\*\*\*\*: 하 또 여주한테 더 치이는 소설 등장..(10화 선녀 구출 작전(3)), 2023.05.30.

작성자biga\*\*\*\*: 아버지 아니지!(96화 장화와 홍련이(6)), 2023.05.30.

주거나 그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말문이 막히게 하는 등 응징할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 상상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으로 웹소설이 고전서사를 수용하면서 고전서사의 교훈으로 익숙한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징악(懲惡)을 강조하여 웹소설에 어울리는 ‘사이다’ 서사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은 판타지 장르의 특성을 띠고 있어 악인에 대해 현실적 처벌 뿐만 아니라 판타지적 처벌도 가능하고, 비슷한 구도의 악인 처벌 에피소드를 유니버스 형식으로 3-4개 연달아 제시하여 악행에 대한 ‘사이다’ 같은 처벌이나 징악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에피소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작중의 문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작중에서 해결되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웹소설 작품은 고전서사를 활용해 ‘사이다’ 서사를 구성하고 유니버스 형식으로 그 구도를 반복하여 교훈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 2) 유한한 삶 속 운명에 대한 인간의 의지 강조

작중 수용된 고전 이야기의 대부분은 악행을 저지른 신수나 인물이 응징을 당하는 구조이지만 악행은 발생했으나 처벌 받는 이가 없는 이야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비꽃 날다>의 과부 여인과 <버들꽃 도령 이야기>의 연이와 버들도령은 인간 삶의 유한성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악행에 대한 응징이 주를 이루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속에서 인간의 죽음을 소재로 삼아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다룬 두 가지 에피소드는 삶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사람들은 생명 연장을 꿈꾼다. 진시황은 장생불사를 꿈꾸었고, 현대인은 의학,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 삶을 연장하려

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sup>47)</sup> 과거에 비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이제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 신체나 기억을 보존하려는 시도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의 바탕에는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비꽃 날다〉의 과부 여인은 모두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삶과 후회가 남지 않는 죽음이라는 선택지 중 후자를 택한다. 현실에서 죽지 않아도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sup>48)</sup>을 갖고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선녀 구출 작전〉 에피소드의 선녀가 시호의 도움으로 지상에서의 기억을 지우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고 시호와 초란이 놀라 되물을 정도로 과격적인 선택이다. 과부 여인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남은 삶 동안 더욱 후회할 것이라며 선택의 이유를 말한다. 또한 〈버들꽃 도령 이야기〉에서 버들도령은 신령과 인간의 사랑이 가져올 결말-먼저 사망할 연인의 괴로움과 정인을 떠나보내고 영생을 살 자신의 괴로움-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 연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말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에게 더 행복한 것은 무엇일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죽음은 각각 현재의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거나 신령과 인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하지만 두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현재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중 인간 캐릭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새로운 삶이 아니라 어

47) 냉동인간에 대한 실험과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 김현정B, 「냉동인간」 가능한 날이 올까? 100일 간 냉동시킨 흰쥐 신장, 나노위밍으로 해동시켜 이식에 성공, 온라인 『The Science 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83%89%eb%8f%99%ec%9d%b8%ea%b0%84-%ea%b0%80%eb%8a%a5%ed%95%9c-%eb%82%a0%ec%9d%b4-%ec%98%ac%ea%b9%8c/>, 검색일: 2024.02.16.

48) 기억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변과의 맥락이 끊기고 기억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 민정인, 「기억의 메타포: 회복된 기억과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석사학위논문, 2015, 1쪽.

떻게 하면 현재 삶이 행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작중 신수들은 인간이 환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기하여 화풀이 삼아 인간을 죽이거나 인간처럼 환생을 하고 싶어서 또는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속죄하기 위해 꼭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처럼 신수들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죽음’과 ‘환생’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삶을 바라본다. 비록 악행을 하여 벌을 받더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리셋 가능성을 부럽게 여기는 것이다.

반면에 작중 인물들은 신수들의 영생을 부러워할지언정 자신의 환생 가능성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신수들은 자신들에게는 영생이 아니면 소멸뿐이라는 것에 불만을 갖지만 인간 역시 죽음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나’의 소멸이나 마찬가지이다. <해와 달 오누이>(45화)에서 초란은 신수 한오와 다투면서 신수들은 죽지 않으니 더욱 멋대로 날뛰는 것이냐고 물으며 “하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 극락에 가건 윤회하여 환생하건 간에, 어찌 되었든 인간은 죽음 후에 얻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생을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게도.”(45화)라고 말한다. 이처럼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작중 인간들은 유한한 현재 삶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성취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삶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문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두 에피소드에서 주인공들의 선택을 보며 독자 역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작품 결말부에서 신수 시호가 보이는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신이 정한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던 신수 시호는 신수 진설과의 최종 대결에서 이미 정해졌다고 믿었던 미래(초란의 죽음)를 자신의 손으로 바꾼(초란의 생존) 후에야 신수에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즉,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운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인간에게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블로그에 게재한 완결 후기에서 작품의 주제라고 설명한 내용<sup>49)</sup>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은 고전서사를 활용해 영생 아니면 소멸이라는 운명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신수와 주어진 상황에 그저 머물거나 죽음을 한계로 인식하지 않고 운명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신수에서 인간으로 존재의 전환을 이룬 캐릭터의 모습을 제시한 결말부와 함께 유한한 삶 속에서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인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였다.

#### 4. 결론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고전서사가 대중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과 함께 현대 콘텐츠로 변형된 고전서사나 고전서사를 수용한 현대 콘텐츠 작품에서 고전서사의 원형이나 가치, 교훈을 구현해야 하는가, 구현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담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과는 별개로 고전서사의 현대 콘텐츠화는 고전서사들이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49) “실은, 운명 따위가 정해진 게 없었다. 주신의 권능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126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야말로 조선여우스캔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의 존재는 타당하나 신의 권능은 부정한다. 인간의 의지는 언제든 신의 권역을 침범할 수 있으며, 운명은 순응하는 자에게는 멈추지 않는 수레 바퀴로, 순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달릴 수 있는 수레로 다가간다. 이런 주제를 전달하고 싶어 기나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하략)” - 차소희, 「〈조선여우스캔들〉 완결 후기」, 『차소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_sohee/221123812254](https://blog.naver.com/cha_sohee/221123812254), 검색일: 2024.02.15.

본고에서 살펴본 웹소설 <조선여우스캔들>은 19종의 고전서사를 수용한 작품으로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동물이 사실은 인간세상에 내려와 문제를 일으키는 신수였다는 설정을 통해 주인공들의 탐험 스토리에 복수의 고전서사 작품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독자들에게 친숙한 고전서사를 수용하고 작중 캐릭터의 악행과 그에 대한 ‘사이드’ 응징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고전서사를 통해 신수의 영생과 인간 삶의 유한성을 대조하고, 유한한 삶에서 죽음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작품의 결말부에서 작중 주인공인 신수가 주신이 정한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명을 바꾼 후 인간이 되는 모습과 함께 삶에 대한 능동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복수의 작품을 반복 나열식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단일 작품을 콘텐츠화한 작품과 비교해 개별 작품 당 해석의 깊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웹소설이 스낵 컬처<sup>50)</sup>의 주요 장르로 소비재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 등은 웹 콘텐츠의 특성이자 한계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작품은 웹소설, 종이책 단행본, 전자책 단행본, 웹툰으로 지속적으로 재창작되었으며 드라마화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복수의 고전서사를 수용한 웹소설의 OSMU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50) 스낵 컬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스낵컬처’라고 부른다. 한 입에 즐기는 과거처럼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 트렌드, 스낵컬처는 점차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영상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15분 안에 즐기는 스낵컬처, 하루가 달콤해지다 : 문화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까지… 기분을 “up” 해주는 즐거움」, 『지역정보화』 9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 114~115쪽.

## 참고문헌

### 1. 자료

- 차소희, 〈조선여우스캔들〉, 네이버 시리즈 앱  
〈조선여우스캔들〉 댓글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앱, 검색일: 2023.05.30., 2023.  
12.26.  
〈조선여우스캔들〉,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온라인 메인 페이지,  
<https://series.naver.com/novel/detail.series?productNo=2588931>, 검색일:  
2023.05.30.  
『深淸傳』, 경관24장본, 한남서림, 1920.  
『장화홍련전·적성의전』, 세창서관, 1915.  
『興富傳』, 경관25장본, 한남서림, 19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2, 1980.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4-2, 8-3, 1981.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4-5, 1984.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5-5, 5-6, 1987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6-3, 1984.

### 2. 논저

- 강상대, 「근대 ‘혹부리영감’ 서사의 자료적 고찰—‘조선 전설·동화 조사’(1913)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8, 2019, 111~141쪽.  
김지선, 「한·중·일 여우 이야기의 비교학적 고찰」, 『귀신·요괴·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361~393쪽.  
김지은, 「웹툰 〈별안간 아씨〉의 古典詩歌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 『語文論集』 92, 중앙어문학회, 2002, 185~208쪽.  
민정인, 「기억의 메타포: 회복된 기억과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석사학위논문, 2015, 1~56쪽.  
박기용, 「한국 도깨비 형상 연구」,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2011, 137~165쪽.  
박영만 지음, 권혁래 옮김, 『(회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 보고서, 1~716쪽, 2013, 1~716쪽.  
송명진, 「웹소설로 진화한 로맨스의 잡식성과 그 서사적 특징 - 웹소설 〈소녀, 홍길동〉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4, 2019, 573~597쪽.  
심의린 저, 신원기 역, 『조선동화대집: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보고서,

2014, 1~228쪽.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집, 우리 문학회, 2018, 119~159쪽.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저, 『조선동화집: 우리나라 최초 전래동화집(1924)의 번역·연구』, 집문당, 2003, 1~192쪽.

최수현, 「고전소설의 콘텐츠화의 한 사례 고찰-웹소설 <설공찬환혼전>의 고소설 <설공찬전> 변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 155~178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15분 안에 즐기는 스낵컬처, 하루가 달콤해지다: 문화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까지... 기분을 "up" 해주는 즐거움」, 『지역정보화』 9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14~115쪽.

홍우진, 「웹소설에 수용된 심청콘텐츠의 변모양상: 웹소설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84~88쪽.

\_\_\_\_\_. 신호림, 「고전문학 기반 웹소설의 서사 확장 방식에 대한 시론(試論) - 웹소설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를 대상으로」, 『한국기호학연구』 68, 한국기호학회, 2021, 189~217쪽.

### 3. 온라인 자료

강다윤, 「지금 안방은 통쾌함 '광광...시원한 '사이다', 여성 주인공과 함께 [MD포커스]」, 온라인 『마이 데일리』, <https://mydaily.co.kr/page/view/2024020509161043987>, 검색일: 2024.02.17.

김현정A, 「"시즌3 제작해 주세요" 모범택시 시즌2 미친 시청률로 맞은 결말」,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7744>, 검색일: 2023.11.30.

김현정B, 「'냉동인간' 가능한 날이 올까? 100일 간 냉동시킨 흰쥐 신장, 나노워밍으로 해동시켜 이식에 성공」, 온라인 『The Science 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83%89%eb%8f%99%ec%9d%b8%ea%b0%84-%ea%b0%80%eb%8a%a5%ed%95%9c-%eb%82%a0%ec%9d%b4-%ec%98%ac%ea%b9%8c/>, 검색일: 20240216.

문지연, 「[SC초점] 사이다無? 안 볼란다.. '더 글로리'→'모범택시' 사적 복수에 열광한 이유」, 『스포츠조선』, <https://sports.chosun.com/entertainment/2023-03-22/202303230100171440020877?t=n1>, 검색일: 2023.11.30.

- 문화원형백과 한국설화 인물유형, 항목명: 망주석 재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83841&cid=49258&categoryId=49258>, 검색일: 2024.02.13.
- 이종길, 「[2022 국감]“정부 예산 증액에도 독서율 계속 감소”」, 온라인 『아시아 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00411121528166>, 검색일: 2023.05.30.
- 임지영, 「10년 전 ‘문학의 수처’였던 웹소설, 과죽지세 확장하기까지」, 온라인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93>, 검색일: 2023.06.19.
- 차소희, 「에피소드1. 망주석 재판」, 『차소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_sohee/220911977226](https://blog.naver.com/cha_sohee/220911977226), 검색일: 2024.02.13.
- \_\_\_\_\_, 「〈조선여우스캔들〉 완결 후기」, 『차소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_sohee/221123812254](https://blog.naver.com/cha_sohee/221123812254), 검색일: 2024.02.1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페이지, <https://encykorea.aks.ac.kr/>, 검색어: 은도끼금도끼, 2023.05.31.
-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web/>, 검색일:2024.02.11.

ABSTRACT

The acceptance pattern and meaning of classical narratives in the web novel <Joseon Fox Scandal>

Park, Hye-sung

This study examined the acceptance of classical narratives in the web novel <Chosun Fox Scandal>, which was serialized on Naver Web Novel, and examined the meaning of the acceptance of multiple classical narratives in the web novel <Chosun Fox Scandal>.

The web novel <Joseon Fox Scandal> is unique in that it arranges multiple classical narrative works in an omnibus format through the setting that the divine beast that fox inspector Siho goes to retrieve is actually an animal that appears in classical narratives. The 19 types of classical narratives, including old novels and folk tales, included in the work are centered on stories about Siho's performance as a royal inspector, accounting for more than 48% of the total volume.

The story of Siho's performance as a royal inspector consists of a repetition of the structure of 'the end of one divine beast problem = the end of one classic episode'. So readers can enjoy the classic narrative while reading the story dealing with the divine beast problem.

Among the 19 types of classical narratives accepted in the work, 1 is a classic narrative that is almost the same depending on the degree of variation, 4 are those in which the common narrative for each classical epic is maintained and only the characters that appear are replaced with characters from the work. In addition, there is one that accepts motifs from classical narratives and one that uses classical narratives as a component of the spatial background. There are 12 stories created by the author by accepting part of the common narrative for each classical narrative. The changes utilized a variety of methods, from taking the work almost as is to taking parts of the work and then having the author

add content that did not exist. In terms of content, characters who commit evil deeds and their punishment were emphasized in 14 of the 18 episodes, excluding the one that adopted a classical narrative as its spatial background.

The acceptance of the classic narrative of the web novel 〈Joseon Fox Scandal〉 first created a 'cider' narrative of the web novel by emphasizing punishment in an old story familiar to readers. At this time, since the problems inherent in evil deeds are repeated in the present, the emphasis on punishment in the story can provide vicarious satisfaction to the readers. Second, using classical narratives, it shows the appearance of a divine beast who is frustrated while complying with fate, and a human being who actively pioneers destiny. Therefore, along with the ending, presents the appearance of a character who has achieved a transition from a divine beast to a human being, it contributed t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human will in creating one's own life and destiny in a finite life.

**Key Words** classical narratives, web novels, web contents, modernization of classics, Joseon Fox Scandal, classical novels, folk tales, punishment, human will, one-source multi-use

논문투고일: 2023.12.30. 심사완료일: 2024.02.03. 게재확정일: 2024.02.07.
--